

경제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 시장을 잡아라”

아세안 교두보 확보 ... 선점 경쟁 후끈

금호아시아나 등 대기업 총수들 나서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열기가 뜨겁다. 베트남은 포괄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경제권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 진출하는데 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재계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포스트차이나' 시대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올해부터 고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욕구와 맞물린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유통, 물류, 보험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개척에 나서거나 기존 진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세제혜택 등 우호

적인 사업 환경 때문에 관심을 베트남으로 돌리고 있다.

최근 대기업 총수와 베트남 정·재계 인사들과의 교류가 눈에 띄게 잦아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지난 9일 한국을 방문중인 쩡영편상 베트남 국가주석을 본사로 초청해 교류 활성화와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항공이 지난 1993년 국내 최초로 호찌민에 취항한 것을 시작으로 금호건설과 금호타이어, 금호고속 등 계열사들이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08년 타이어 공장을 짓는 등 금호아시아나는 베트남에 총 5억달러를 투자하고 8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LS그룹 구자열 회장도 이날 쩡영

편상 주석과 만나 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LS전선은 1996년 베트남에 진출해 매년 3억5천달러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앞서 지난 달 25일 대한생명 신은철 부회장과 한화건설 김현중 부회장, ㈜한화 무역부본 박재홍 대표, 푸르덴셜투자증권 이명섭 사장 등을 태우고 베트남 하노이로 날아갔다.

한·베트남 경제협력포럼을 결성한 김 회장은 호앙중하이 베트남 부총리를 예방해 다방면의 투자 협력을 논의했다.

한화는 2009년 대한생명이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진출했고, 한화건설은 호찌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고속도로 건설사업 참여를 추진 중이다.

대한생명 베트남 현지법인인 5천 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한화는 시장을 확대해 2015년에는 시장 점유율 5%, 설계사 1만6천명, 초회 보험료 3천400만달러를 목표로

잡고 있다.

올해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기치로 내건 한화는 6개의 글로벌시장 개척단 가운데 아세안 지역본부는 호찌민에 두고 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7월 하노이에서 마이후틴 U&I그룹 회장을 만나 내년 말까지 마트 하노이 1호점 출점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 회장은 이마트의 동남아 진출에 베트남을 주요 거점으로 활용할 방안이다.

중국에서의 실적이 저조한 롯데마트는 지난 9월 롯데베트남소매의 자본금을 5천만달러 증액할 수 있도록 베트남 투자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에 탄력을 얻었다.

앞서 롯데마트 노병용 사장은 베트남을 방문해 상공부장관 등 정부 관리와 만나 외국자본 제약 완화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CJ GLS는 지난 7월초 국내 물류업체 가운데 베트남에서 택배사업을 시

작했다. 하노이와 호찌민 등 주요 지역 9곳에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작년 인터넷 이용자 수가 2600만명을 넘어선 베트남은 온라인쇼핑과 택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CJ GLS는 보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락엔락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락엔락 김준일 회장은 베트남을 수출기지로 정했다. 락엔락은 호찌민 인근 연쪽에 생산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봉파우에는 내일 유리 공장을 짓고 있다.

김 회장은 중국이 인건비가 매년 오르고, 세제혜택도 줄어들어 생산기지로 매력 없어졌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베트남사무소 조호균 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업들이 ‘거만한 중국’을 떠나 ‘팔 벌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9월 메콩강 경제권 시장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호찌민지부를 마련했다.



“LED조명은 중기 적합업종” 조명, 전등기구, LED조명 등 3개 중소기업에 공업협동조합은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LED조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LED 등을 적합업종에 선정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며 “유보신청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영관 영백염전 회장 대통령표창

‘농업인의 날’ 천일염산업 발전 기여 공로

김영관 (주)영백염전 회장이 최근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천일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1974년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갯벌 약 13만평에 전통 갯벌염전인 영백염전을 개간해 37년간 갯벌천일염을 생산해 온 장인이다.

이 염전 주위에는 화확물질 오염원인 농지가 없다. 결정지 바다 소재도 도자기 용기판을 쓰고 있다. 천일염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이기에 지난 2007년 5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한 것이다.

기존 염판독의 부지포, 소금창고와 해주의 슬레이트 지붕, 창고 벽에 사용된 장판 등 건강을 위협할 만한 소재를 모두 갈아냈다. 채염도구와 이송장비도 친환경 소재로 바꿨다.

생활하수 등 오염원이 나올 수 있는 사택은 현대식으로 지어 환경설비를 갖췄다. 염판마다 수세



식 위생시설을 갖춰 늘 정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근로자들은 염전에서 일할 때 반드시 위생복과 위생모, 장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영백염전은 생산한 소금을 연도별·계절별로 구분해 간수를 뺀 뒤 종합처리공장을 통해 제염화하고 있다. 이 공장은 업계 최초로 국제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갖춘 시설로 세정·탈수·건조·분쇄·융합·선별·포장 등 공정을 거쳐 친환경브랜드 ‘갯뜨락 오가닉소금’ 등을 내놓고 있다.

영백염전은 2009년 11월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현대식 천일염 체염장을 건립해 친환경전 견학과 천일염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박경욱기자 jwpark@kwangju.co.kr

SKT, 하이닉스 3조4267억원에 인수

SK텔레콤은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의 구주 6.4%와 신주 14.7% 등 총 21.1%의 지분을 총 3조 4267억7500만원에 인수한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하이닉스 채권단 및 하이닉스와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 하이닉스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구주)인 6.4%(4425만주)와 하이닉스가 제삼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할 신주 14.7%를 총 3조4267억75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하이닉스 측과 지분인수에 관한 조인식을 치르며, 지난 7월8일 인수신청서(LOI)를 제출하면서 시작한 하이닉스 인수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구주 인수 가격은 1주당 2만4500원씩 총 1조841억2500만원이고, 신주 인수 가격은 주당 2만3000원씩 총 2조3425억5000만원이다. SK텔레콤이 인수하는 전체 주식의 1주당 평균 인

수 금액은 2만3천45444원이다. 하이닉스의 주식시장 거래가격이 10일 종가 기준 2만1500원인 것을 고려하면 구주 14%, 신주 7% 등 평균 약 9.1%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정밀실사와 인허가 등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안에는 하이닉스 인수를 완전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유통공사 김장철 앞두고

고추·마늘 비축량 대거 방출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가 김장철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비축 고추와 마늘 공급을 확대한다.

14일 aT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에 따르면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장상과 공매를 통해 매주 수입고추를 400t에서 700t, 수입마늘을 700t에서 1000t, 각각

300t씩을 확대 방출하고, 국내산 수메마늘 400t도 추가 방출한다.

고추 가격은 8월 이후 기상여건이 호전되고 민간의 병동고추 수입량도 급증하면서 11월 현재 kg당 2만2000원(화간 중품 도매시장 평균가)에 거래되고 있으나, 지난해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종경 지사장은 “이번 aT의 정부 비축 고추와 마늘 방출은 김장철 소비자 장보기 물가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aT는 앞으로도 시장의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해 정부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지경부 中企 적합업종 선정 간섭말라”

LED업계 유보신청 반발

최근 LED산업포럼이 동반성장위원회에 LED조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유보해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산업포럼이 지식경제부 유관 단체라는 점을 들어 “지경부가 부당하게 단체를 앞세워 적합업종 선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3개 조합은 14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ED 등을 적합업종에 선정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며 “유보신청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ED산업포럼은 대기업·중소기업·관련조합 등이 포함된 동반성장 협의체로, 지난 9월 “포럼에서의 합의한 내용이 동반위 권고내용이 다르다”며 적합업종 선정 유보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산업포럼은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

며 “유보 신청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동의도 전혀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특히 산업포럼 사무국이 지경부 산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경부도 이와 관련해 분명한 태도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지경부는 더는 산업포럼을 앞세워 부당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스피지수	▲ 1902.81 (+39.36)
코스닥지수	▲ 510.09 (+10.01)
금리 (국고채 3년)	▲ 3.39% (+0.02)
원·달러 환율	▼ 1123.20원 (-3.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